

IMF때 보다 낙폭 커... ‘주식 정리 vs 반등 기대’ 선택해야

6000선 무너진 코스피

#. 40대 직장인 신모씨는 “7월이 끝을 앞둔 가운데 ‘검은 화요일’ (28일)에 이어 6000선까지 무너지자 투자금 수천만원이 이를 새 날아갔다”며 “한반도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허무하게 손실을 보니 역시 국장(한국 주식시장)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이모(34)씨는 보유 중인 SK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마이크로소프트를 살지 고민하고 있다. 이씨는 “이제는 서킷브레이커에도 익숙해질 정도로 코스피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며 “같은 주식이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코스피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개인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시장 우려와 중동 사태 긴장 장기에 따른 미국 금리인상 전망, 중국 반도체 성장 등 복합 요인이 국내 증시를 흔들고 있어서다. ‘검은 화요일’과 ‘검은 수요일’을 연일 겪은 시장은 향후 전망에 대해 ‘과매도’라는 언급만 할 뿐이다.

◆반도체 편중, 부메랑 됐다

29일 주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공지능(AI) 거품과 반도체 패닉’을 언급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다시 지리한 3년이 시작되는 것 같다”, “대폭락 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거 같다. 절대 신용 매수 금지” 등이다. 불안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하루 평균 순매수액은 7543억원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순매수액인 2조191억원보다 63%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실탄’이 바다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8일 기준 증시 대기자금 성격의 투자자에탁금을 107조1994억원으로 집계했다. 지난달 4일 139조6948억원과 비교해 30조원가량 줄었다.

‘빚투’ 자금도 감소세다. 같은 날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3조1940억원으로 최근

